

5·18 다룬 영화 '황무지' 조사 개시 결정

상영 준비 중 보안사 지시로 필름 탈취돼 진실화해위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판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을 포함한 181건을 조사 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황무지'를 제작해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의 필름 압수로 인해 영화 상영이 중

단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보안사가 영화 '황무지'에 대해 보고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영화 상영 과정에서 필름 탈취 등을 통해 상영을 방해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여덟 번째로 조사 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항일독립운동인 '차○○의 정의부 활동', '부산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영화 '황무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 김의기는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 한 소녀를 사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탈영한다. 김의기는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군산 미군 기지촌에 숨어들게 됐고, 이때 기지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광주에서 사살한 소녀를 떠올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결국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직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이 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1월 24일 기준 1만8천383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2만310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와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김진수기자

▶1면 '동북댐'...서 계속

덕흥보 주변 영산강 물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물을 끌어 올리는 '필핑' 여건에 따라 기존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가압시설 설치도 추진기로 했다.

시는 동북댐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주담댐 원수 30만t 중 10만t을 용연정수장에, 20만t을 덕남정수장에 분할 공급하는 안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물 절약으로 12월 첫째 주 물 생산량 절감 효과가 8.2%까지 올랐다"며 "20%까지 조기 달성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제한급수나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물 절약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동북댐은 용연정수장을 통해 광주 동·북구 주민 60만명에게, 주담댐은 덕남정수장에서 서·남·광산구 주민 85만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불우 이웃돕기 동참해주세요" 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앞에서 열린 연말시 '따뜻겨울나기'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임택동구청장과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관계자들이 모금함에 이웃돕기 성금을 넣고 있다. /김재리 기자

청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활력 견인

행안부 10팀 지원...道, '전남형' 133팀 추가 집중 육성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전남형' 사업을 도입, 집중 육성하고 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 청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7년 도

입해 지난해까지 29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전남 10개 팀을 포함해 전국 140개 팀을 선정해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 제작, 미술을 통한 지역주민 심리치유, 스마트홍보영상 제작, 청년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완망진창' 청년공동체

는 청년이 관광명소를 추천하는 청년지도를 제작하고 유희 공간을 활용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플리마켓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세대 간 화합을 위해 손주학교를 운영하고 완도 생활을 공유하는 완성 영상일기(Vlog)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청년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행안부의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2021년 영광군 '일

곱빛깔 선행공동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최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안부 지원과 별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 133개 팀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공동체가 이끈 새로운 청년문화가 지역에 활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청년공동체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최종 청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기습폭설 대응 합동훈련

오늘 용두-담양 도로개설공사 구간

광주시는 기습폭설로 인한 도로 정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일 용두-담양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유관기관·단체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광주지역에 신축설 20cm의 기습 폭설이 발생하면서 신용지하차도 입구에서 차량 미끄럼 추돌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진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기관의 임무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훈련에는 5개 자치구·북부소방·북부경찰·지역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제설차·교통순찰차 구조

차·구급차 등 장비 18대가 동원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습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상황 전파 ▲사고지점 진입차량·우회도로 유도 등 교통통제 ▲제설함 사용 긴급제설 ▲구조작업·사고차량 견인 ▲합동 제설작업 등 현장에서 신속 조치돼야 할 내용을 훈련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겨울 대설·한파에 대응했던 값진 경험을 훈련에 적용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폭설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을 문제없이 해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선경기자

道, 공간정보 활용 사업모델 발굴

워크숍 개최...AI·메타버스 등 주소정책 방향 논의

전남도는 최근 영암에서 '2022년 공간정보 워크숍'을 개최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과제 경진대회'도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고종신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민호 목포대학교 교수, 이소철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주소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광목 ㈜이디스 대표는 "최신 기술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동향'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자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드론)로 행사를 직접 촬영·시연해 항공영상 행정모델 기반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어 연구과제 경진대회에선 공간

정보와 도로명주소 분야 21개 연구과제를 사전 심사해 선정된 6개 시·군별 연구과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결과, 공간정보 분야 대상은 광양시, 최우수상은 여수시, 우수상은 완도군이 차지했으며, 도로명주소 분야 대상은 목포시, 최우수상은 함평군, 우수상은 무안군이 수상했다.

경진대회 우수 과제는 2023년 업무에 적용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하는 등 공간정보 정책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박석호 토지관리과장은 "최신 기술 동향과 우수 연구과제 공유로 전남도, 시·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등과 같은 신기술과 융합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도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유모차·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

광주시, 5개 자치구 7대...대형용품도 가능

광주시는 5일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5개 자치구 주요 시설에 유모차·휠체어 살균 소독기 7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설치 장소는 ▲동구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 1층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1층 ▲남구 남구청 1층 민원실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 1층과 중흥도서관 1층 ▲광산구 광산구보건소와 광산구 차매안심센터 1층 등이다.

이번 살균 소독기 설치의 시민 제안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다.

설치된 살균 소독기는 각종 세균·바이러스·곰팡이를 살균하고, 아토피·비염 등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제거한다. 특히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어 소독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소독 중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정지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유모차·휠체어를 주기적으로 소독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장애인, 노령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선경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시령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70베드,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클러,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빈몰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시오른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를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